

■ 경제불황속 취업성공 10계명

구직 사실 적극 알리며 네트워크 확대



최근 경제 위기로 기업들의 감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인력전문기업 세스나그룹은 10일 '한인 구직자 취업 성공 10계명'을 내놨다. 이 자료는 30인의 컨설턴트들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경제불황기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취업 실전 전략을 담고 있다.

◇주변에 구직 사실을 적극 알린다=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가장 빠르게 실질적인 취업정보는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다.

◇종이 신문을 정독하라=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기업정보와 취업정보들은 종이 신문에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직활동에 더 효과적일 때가 있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채용 공고가

종이 신문에는 나오기도 한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활용=온라인 취업정보사이트에 자신의 최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구직방법이다.

◇전화를 놓치지 마라=기업의 채용담당자는 구직자의 휴대전화

를 수 있다.

◇채용전문업체에 자주 전화하라=헤드헌팅 회사에 이력서만 등록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벗어나 자신의 열정을 담아 헤드헌팅 회사에 적극적으로 전화 상담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커리

상을 심어줄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한다=기업은 적절한 희망 살러리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면접을 원한다. 자신의 몸값을 과대 평가해 인터뷰 기회조차 상실하는 오류는 피하는게 좋다.

◇추천서를 미리 확보한다=인터뷰 전후에 자신을 검증해 줄 만한 추천서를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제출한다. 채용담당자는 이런 인재를 각별히 눈여겨 본다.

◇취업박람회 참석한다=불황 중에도 모든 기업은 우수인재를 찾는다. 신문사와 채용회사 등에서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가능한 많이 참석한다. 취업박람회장이 아니면 하루에 10명 이상의 채용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최은두 기자 emchoi@koreadaily.com

종이신문 정독 채용공고 수집 취업박람회 참가 직접 인터뷰

수신상태를 통해 구직 의지와 열정을 확인하기도 한다. 구직활동 중에는 걸려오는 전화를 벨이 두 번 울리기 전에 받는 것이 좋다.

◇직장인 친구와 자주 만나라=현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과 만나면 해당기업의 채용 분위기 등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

어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업 정보를 많이 수집한다=자신이 목표하는 기업의 사업동향과 실적 등 관련 정보는 모두 찾아 미리미리 숙지해 면접에 대비한다. 풍부한 해당 분야 지식으로 무장돼 있으면 짧은 면접 시간에 채용담당자에게 강한 인